



고객이 원하는 민간방재기관으로

Let's GO!!

친애하는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밝고 희망찬 壬辰年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壬辰년에는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일본 대지진, 유럽발 재정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 가운데, 한국경제는 비교적 경미한 타격을 받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인해서 금년은 한국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되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KFPA는 민간방재기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KFPA의 설립목적인 화재예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점검능력 향상과 대민교육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본인 스스로 잘 관리하고 있는 우수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서와 인정패를 부착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건물주 스스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전국에 걸쳐 109개 우수건물을 선정하는 바 있으며 금년에도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화재의 절반 가량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통계 분석결과에 따라 교육대상을 선정하고 적합한 교육자료와 사내의 전문강사를 활용한 맞춤형 화재안전교육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과거 30여 년간 화재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선진모델을 소개하고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재안전교육 국제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KFPA는 2009년에 이어 작년까지 전국에 산재된 재활원, 양로원, 고아원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우리의 재능을 활용한 화재안전봉사활동을 실시해서 지난해 11월 2년여 만에 전체 목표시설 245개소에 대한 봉사활동을 마친 바 있으며, 2년 주기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소득양극화 현상과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쪽방촌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KFPA가 펼친 나눔과 봉사활동은 외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다운 한국인에게 주는 “2011 세종나눔 봉사대상”에서 『특별대상 세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뒤로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12년을 시작하면서, KFPA는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를 “고객이 원하는 민간방재기관으로 Let's Go”로 정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고객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한다면 이를 통해 고객은 자연스럽게 KFPA를 최고의 민간 방재기관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또한, KFPA는 금년도 경영목표를 ‘위험관리 전문기관 기반구축’과 ‘화재안전문화 효과적 확산’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기반을 굳건히 할 계획입니다.

KFPA의 축적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위험관리기술 향상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원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시험연구업무와 화재조사업무가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민교육에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시작한 재현실험은 보는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영상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재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화재통계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교육이

필요한 대상과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교육실시 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운영함으로써 화재안전문화 대표기관이 되도록 발전시켜겠습니다. 이러한 화재안전문화 확산에 KFPA 역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동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壬辰年 새해는 모든 환경이 과거보다 더욱 빠르게 변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많은 시련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KFPA 임직원들은 결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재기술 발전에 앞장서는 최고의 민간 방재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희망찬 壬辰年 한 해,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영광이 내내 함께 하고,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 2
이사장 **고영선**

